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프티미오스 대수사

루가 제12주일

성 마카리오스 대수사, 성 마르코스 에페소 대주교
제6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 사도경: 골로사이 3,4-11 / 봉독서 362

· 복음경: 루가 17,12-19 / 130. B 8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에프티미오스 대수사

우리 교회에서 1월 20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에프티미오스 대수사(†A.D. 473)는 기도의 수도자입니다. 성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마태오 21:22)라는 복음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68년을 사막에서 생활하였고, 거의 100세에 안식하셨는데, 성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예견된 것을 봤습니다. 성인이 살아 계셨을 때 행하신 기적 중의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약 400명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 성인이 계시는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성인이 그들 모두에게 음식을 제공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요한 14:12)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필립비 4:6)으로 하나님께 간청할 때,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간청할 때, 이 양식은 절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믿음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특별히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 가운데서도 특히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으로부터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조상이 되기도 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보며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다시 짐작해 보기로 하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만끽하기 위해서인지 그를 시험해보고자 한번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이라 표현하셨으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뒤늦게 얻은 그의 아들을 몹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물어 보지도 않고 바로 아들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향하였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느님이 주신 창조물을 하느님이 거두어 가시겠다는데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뿐이었다. 오히려 아들 이사악이 이상히 생각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하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잡고 찌르려고 하였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거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하며 그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고 그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떠했을까?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물로 바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 보는 것조차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딱해서, 불쌍해서 등등 인간적인 수식으로 믿음을 등한시하고 자녀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기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세

☞ 3면으로 계속

우리 삶의 방향은 곧 우리의 목표이다!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올리버 웬델 홈스: 1841-1935 미국의 법학자, 연방대법원 대법관)

새로운 해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번쯤 해보기 좋은 때이다.

- 지금부터 5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기를 바라는가?
-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 지금부터 영원히?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선택하는 **목표**에 달려 있다. 천국은 하느님과 함께 거니는 대가로 현금을 내야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길이 끝나는 곳이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의 목표여야만 한다.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은 열망을 통해서이다. 그곳에 있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거리가 아니라 열망의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사막의 교부)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이다. 마치 영적인 치료는 마다하고 인간적인 치료만 원하는 나병 환자 열 사람 가운데 아홉 사람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원하는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 이방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하시며 육신의 치료는 물론이고 영적인 치료도 해주시며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갖고 믿음이 성숙되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소 식

대교구

■ 대교구의회 공고

2020년 1월 22일 제16회 대교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12시: 점심 식사 / 오후 1시: 대교구의회

· 장소 || 대교구청 회의실

■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1월 31일~2월 2일(초, 중, 고등부)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수련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40,000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정 성수식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성스러운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정 성수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1월 21일(화) 성 막시모스 그리스인 수사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 1월 25일(토) 설날,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

